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7. 30.(목) 9시

“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”

-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30일 개시
- 재외공관 확인 후 은행으로 전자 전송...시간·비용 줄어

【국정과제 123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해외 체류 중인 A씨는 그동안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했었다. 그러나, 이제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에 해당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어 편리하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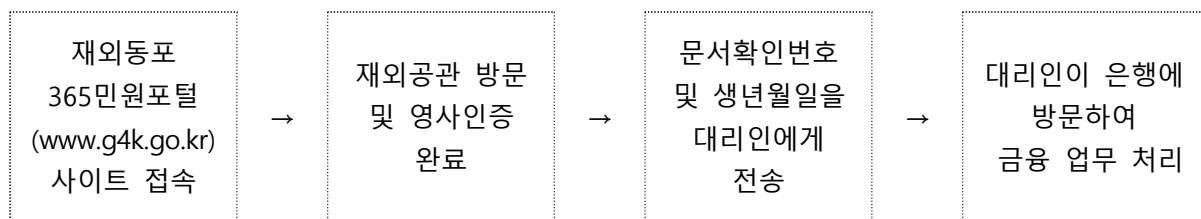
-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.
 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7월 30일 오전 9시(한국 시간)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이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.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.
 -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.
 -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,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

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.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,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.

□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.

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뒤 금융위임장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.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를 활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면 된다.

< 재외동포 서비스 이용 방법 >



□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,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와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(MOU)」의 첫 성과다.

○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,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□ 이번 서비스 개시에는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, 우정사업본부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하며, 앞으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금융회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.

붙임 : 지난 5월 열린 업무협약식 사진 2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	책임자	팀 장	국승용	(02-6399-7171)
		담당자	사무관	정선옥	(02-6399-7177)
	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	책임자	과 장	변현정	(032-585-3179)
		담당자	주무관	박수빈	(032-585-3186)
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	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빈	(02-2100-2982)
	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	책임자	센터장	박정현	(02-531-3100)
		담당자	팀 장	이제은	(02-531-3150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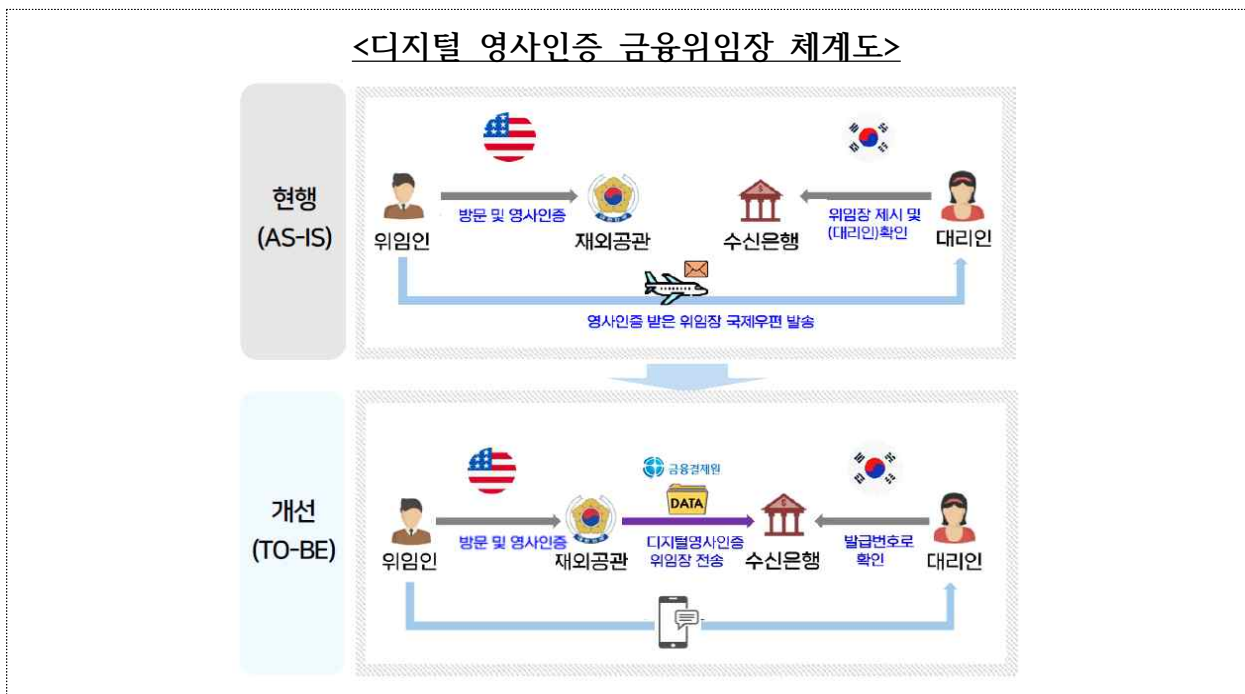
1. 개요

-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하고, 촉탁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

* 재외동포청, 「(국정과제 123)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」 관련

2. 주요 내용

- (서비스 개요) 재외동포청 및 금융회사 간 연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,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조회·검증 후 재외동포의 금융거래 업무 수행



- (참여 금융회사) 7개 금융회사

-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, 우정사업본부
- ※ 우리은행, 경남은행, iM뱅크 등 3개 금융회사는 하반기 참여 예정

3. 주요 개선사항

□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처리 절차

- ❶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(g4k.go.kr)에서 금융위임장 신청 후 재외공관을 방문하면, 금융위임장 영사 확인 후 문서발급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. (신분증 지참)
- ❷ 재외공관은 재외동포청이 구축한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통해 영사가 전자서명한 금융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생성한다.
- ❸ 재외동포청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금융위임장을 해당 금융회사은행에 전송하고,
- ❹ 대리인은 국내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위임장 문서발급번호 및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재외동포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(위임장 실물 소지 불필요).

<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도입 전·후 비교 >

구분	도입 전	도입 후
위임장 형태	종이 문서 (우편 송부)	디지털 전자문서 (실시간 전송)
전달 소요시간	수일~수주 (국제우편)	실시간
금융회사 진위확인	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만 가능하며 위변조 여부 검증 어려움	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통한 위변조 여부 검증
재외동포 편의성	우편 발송 후 도착 확인까지 대기 필요	우편 발송 불필요 및 발급 즉시 금융거래 처리 가능
비용부담	국제우편 비용 발생	우편 비용 불필요